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 검토 - 표기와 인용 방식을 중심으로 -*

차 광 호*

- I. 서론
 - II. 『삼국유사』의 『삼국사』 표기 방식
 - III. 『삼국유사』의 『삼국사』 인용 방식: 『삼국사기』와의 내용 비교
 - IV. 결론

국문초록

『삼국유사』의 전거 중 하나인 『삼국사』는 현전하지 않기에 실체 파악이 어렵다. 더욱이 ‘삼국사’라는 서명은 『삼국유사』의 또 다른 전거인 『삼국사기』나 『국사』의 동의어로도 사용될 수 있어서 혼란은 가중된다. 『삼국유사』의 찬자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삼국유사』에서 전거를 인용하는 방식에 주목하였는데, 그 결과 전거명의 표기와 관련해서 몇 개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었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06865)

** 우석대학교 강사 / chacoo@hanmail.net

선 이 책을 인용할 때마다 ‘삼국사’라는 전거의 명칭을 빠짐없이 기록해 출처를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삼국사’와 그 종속어를 병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삼국사』의 종속어로는 「本傳」이나 「列傳」과 같이 ‘傳’의 형식을 갖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출전 표기 방식은 『국사』나 『삼국사기』와 차이가 있다. 『국사』는 ‘국사’라고 표기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 용어를 생략하기도 했고, 때로는 ‘記’ 형식의 종속어로 출처를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史傳’이나 ‘國史史臣’과 같이 ‘史臣’류의 용어들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삼국사기』는 ‘삼국사기’라는 서명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신 「史臣之論」이나 「史論」과 같은 ‘史臣’류의 용어들로 출처를 표기하였다. 이와 같이 『삼국유사』의 찬자가 『삼국사』를 『국사』나 『삼국사기』와 다르게 표기하였다는 것은, 이들 세 전거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한편 원문과 인용문의 관점에서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와 『삼국사기』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는데, 『삼국사』가 『삼국사기』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살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두 사서의 관련 내용은 주제와 문맥, 문장 구조와 분량, 용어와 표현 등에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삼국유사』의 찬자는 적어도 출전의 표기와 인용 방식에 있어서 『삼국사』를 『국사』나 『삼국사기』와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구삼국사, 국사, 삼국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I. 서론

『三國史』는 『삼국유사』에서 다수 인용된 전거 중 하나이다. 그러나 고려시대나 그 이전에 편찬된 ‘삼국사’라는 서명의 책은 현전하지 않고, 『삼국유사』도 이 책을 인용만 할 뿐 서지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삼국사기』를 약칭해서 ‘삼국사’라고 언급한 사례가 있고,¹⁾ 『삼국사기』가 찬술되기 이전에 또 다른 『삼국사』, 일명 『구삼국사』가 편찬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²⁾ 『삼국유사』의 전거중 하나인 『국사』가 ‘삼국사’로도 불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³⁾ 다시 말해 고려시대에는 ‘삼국사’라는 서명으로 불릴 수 있는 책이 적어도 3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가정을 가능케 한다. 즉 『삼국유사』에 언급된

-
- 1) 김부식이 인종에게 『삼국사기』를 바치면서 작성한 「진삼국사표」에는 책의 제목을 ‘삼국사’라고 하였다. 한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삼국사기』를 ‘삼국사’라고 기술하였다. 두 역사서는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지만, 고려시대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찬술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국사기』를 ‘삼국사’라고 칭한 것은 고려시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2) 고려 초에 『구삼국사』가 편찬되었다는 견해는 아래의 논저를 참고할 수 있다.
박인호, 『한국사학사대요』.
정구복, 『한국중세사학사(I)』, 집문당, 1999.
末松保和, 「舊三國史と三國史記」, 『朝鮮學報』 39-40, 1966.
김석형, 「구삼국사와 삼국사기」, 『역사과학』 4, 1981.
정구복, 「고려 초기의 삼국사 편찬에 대한 일고」, 『국사관논총』 45, 국사편찬위원회, 1993.
이정훈, 「구삼국사의 편찬시기와 편찬배경」, 『역사와 실학』 31, 역사실학회, 2006.
노명호, 「고려 전·중기에 歷史書는 왜, 어떻게 다시 서술되었나: 『삼국사』의 구성과 그 후의 변화」, 『역사학보』 248, 2020.
 - 3) ‘국사’라는 용어는 독립된 서명일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正史류의 공식적인 역사서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차광호, 「삼국유사에서의 국사 인용 형태와 그 의미」, 『영남학』 3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6.

『삼국사』는 첫째, 『구삼국사』를 지칭한 것이라는 점, 둘째,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이칭한 것이라는 점, 셋째, 『구삼국사』나 『삼국사기』와 관계없는 제3의 전거를 지칭한 것이라는 점, 넷째, 『구삼국사』와 『삼국사기』의 공통된 이칭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 등이다. 여러 추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와 『국사』, 그리고 『삼국사기』가 각각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삼국사』가 전하지 않고 있고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와 『국사』의 일부 기록, 그리고 『삼국사기』만이 존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삼국유사』의 찬자가 『삼국사』와 『국사』, 『삼국사기』를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살피는 것은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삼국유사』에서 이들을 세 전거가 각각 어떠한 형태로 인용되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⁴⁾ 세 전거를 인용하는 형식적인 측면에는 찬자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삼국유사』의 찬자가 세 전거를 동일하게 인식하였는지, 아니면 다르게 보았는지 등에 따라서 인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출전의 표기방식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삼국유사』의 찬자가 『삼국사』를 표기한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삼국사』의 표기 방식이 『국사』나 『삼국사기』의 그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세 사서의 표기 방식이 같거나 공통성이 있다면, 『삼국유사』의 찬자는 이들을 같은 책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다르다면 각기 다른 책으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끝으로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의 내용과 『삼국사기』의 해당 부분을 원전과 인용문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가 『삼국사기』라면

4) 『삼국유사』의 주요 전거 중 하나인 『국사』의 인용 형태와 특징은 아래의 논문에서 검토된 바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국사』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선행 연구를 참고, 인용한 것이다.

차광호, 앞의 논문, 2016.

각각 인용문과 원문으로서의 특징을 나타낼 것이고, 그러하지 않다면 거기에 맞는 특징을 보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거를 표기, 인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삼국유사』에 수록된 『삼국사』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이해의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⁵⁾

II. 『삼국유사』의 『삼국사』 표기 방식

『삼국유사』의 찬자는 『삼국사』를 「기이」·「의해」·「피은」의 3개 편목, 총 8개의 조목에서 인용, 언급하였다. 이 중에서 ‘삼국사’라는 명칭을 단독으로 기술한 곳은 일곱 군데이며, ‘三國史 本傳’이나 ‘三國史 列傳’, ‘前三國史’와 같이 다른 명칭이나 표현을 ‘삼국사’와 병기한 곳이 세 군데이다.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 『삼국유사』의 『삼국사』 인용 사항

편목	조목	인용 위치	인용 내용	인용 태도	출전 표기	비교 출전 표기 ⁶⁾
기이	마한	본문	-명주는 옛날의 예국인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穢王印을 발견해 바쳤고, 춘주는 예전의 우수주인데 옛날의 맥국임	자료 제시	-三國史	-魏志 -甄萱上太祖書 -崔致遠云 -本紀 -周禮 -淮南子 -論語正義 -海東安弘記
기이	말갈 발해	분주	-의봉 3년 고종 무인에 고려 殘孽이 類聚해 북으로 太白山下에 의거해 국호를	자료 제시	-삼국사	-通典 -新羅古記 -指掌圖

5) 전거의 표기와 인용은 『삼국유사』 찬자의 글쓰기 방식과 관련된 사항이다. 따라서 글쓰기 전반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이에 관한 질책은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발해라 함 -개원 20년에 明皇이 장수를 보내 토벌함 -성덕왕 32년 현종 갑술에 발해말갈이 바다를 건너 등주를 침범하니, 현종이 이를 토벌함			-賈耽郡國志 -地理志 -羅人云 -東明記 -後魏書
		본문	-백제 말년에 발해말갈, 신라가 백제 땅을 나누었음	자료 제시	-삼국사	
기이	제이 남해왕	본문	-신라에서는 왕을 거서간이라 함	자료 제시	-삼국사	-或云 -或曰 -或作 -金大問云 -或云 -古傳 -史論
기이	무왕	분주	-무왕을 법왕의 아들이라 함	판단 유보	-삼국사	-國史 -此傳
기이	후백제 견훤	본문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 함통 8년 정해에 출생 -본성은 '이', 후에 '견'으로 성씨를 삼음 -부친 아자개는 농민으로 光啓中에 사불성에서 장군을 자칭함. 그의 四子 모두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는데, 그 중 견훤이 뛰어났음	자료 제시	-三國史本傳	-李碑家記 -古記 -書(崔致遠作) -史論
기이	가락국기	본문	-구형왕은 양 무제 중대통 4년 임자에 신라에 항복	자료 제시	-삼국사	-開皇曆 -開皇錄
의혜	원광서학	분주	-원광이 신유년에 귀국함	자료 제시	-삼국사	-唐續高僧傳 -達函 -古本 殊異傳
		본문	-수에서 돌아와 기슬갑에 거처한 원광이 귀산과 추향에게 세속오계를 전함	자료 제시	-三國史列傳	-唐傳 -鄉傳 -光師傳 -海東僧傳
피은	신충패관	본문	-효성왕과 경덕왕 때의 신충 일화	자료 제시	-前三國史	-三和尚傳 -別記 -高僧傳

<표 1>을 보면 『삼국사』는 주로 「기이」편에서 인용되고 있는데, 『국사』가 「홍법」이하 편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된다.⁷⁾ 인용한 위치는 본문이 7회이고 분주가 3회로 본문에 서술한 경우가 더 많다. 찬자의 인용 태도를 보면 ‘무왕’조와 같이 판단을 유보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용 자료에 대한 신빙성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자료를 제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만약 찬자가 인용 자료에 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을 법도 한데, 그러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삼국사』를 자료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인용한 내용을 주제별로 보면 국가나 국왕에 관한 것이 많다. 특히 ‘원광서학’조를 제외하면 불교적인 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역시 『국사』와 비교된다. 『국사』를 인용한 내용은 불교적인 것이 많았다.⁸⁾ 『삼국유사』에서 『삼국사』를 인용한 내용이 불교와의 관련성이 미약하다는 것은, 이 전거가 주로 역사적 사항을 위주로 한 「기이」편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점과 연결시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삼국사』라는 역사서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표 1>에서 주목되는 것은 『삼국사』라는 전거를 표기하는 방식이 『국사』나 『삼국사기』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이다. 이들 세 전거명의 표기 방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 6) <표 1>의 ‘비교 출전 표기’는 포함 범위를 확대하여, 서적 자료뿐만 아니라 ‘羅人云’, ‘或云’, ‘金大問云’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였고, 아울러 ‘此傳’과 같이 전거를 지칭하는 표현도 포함하였다.
 - 7) 『국사』를 언급, 인용한 조목의 수는 「기이」편 4조목, 「홍법」편 2조목, 「답상」편 5조목, 「의해」편 1조목, 「감통」편 1조목으로 역사적 사항을 다루는 「기이」편 보다 불교기사를 위주로 한 「홍법」이하 편에서의 인용 비중이 높다.
 - 8) 『국사』에서 인용한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전쟁과 來投 기사가 3회(낙랑국), 국왕 기사가 4회(고구려, 보장봉로 보덕이암, 대산 오만진신), 불교 기사가 10회(문호왕 법민, 무왕, 원종홍법 염촉멸신, 보장봉로 보덕이암, 가염불 연좌석, 황룡사 구층탑, 전후 소장사리, 자장정물), 기타 기사가 6회(보장봉로 보덕이암,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선도성모 수희불사)로, 불교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다.

[표 2] 『삼국유사』 인용 『삼국사』·『국사』·『삼국사기』의 출전 표기

구분	편목	조목	출전 표기
삼국사	기이	마한	三國史
	기이	말갈 발해	삼국사
	기이	제이 남해왕	삼국사
	기이	무왕	삼국사
	기이	후백제 견훤	三國史 本傳
	기이	가락국기	삼국사
	의해	원광서학	삼국사/三國史 列傳
	피은	신충패관	前三國史
국사	기이	낙랑국	國史
	기이	고구려	國史 高麗本記
	기이	문호왕 법민	국사
	기이	무왕	국사
	홍법	원종홍법 염촉멸신	국사
			국사
	홍법	보장봉로 보덕이암	高麗本記
			국사
			국사
			국사
			국사
			국사
	탐상	가염불 연좌석	국사
	탐상	황룡사 구층탑	국사
	탐상	전후소장사리	국사
	탐상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	국사
			史傳
	탐상	대산 오만진신	국사
			국사
	의해	자장정률	국사
삼국사기	감통	선도성모 수희불사	國史 史臣
	기이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	三國史記

위의 <표 2>를 참고하면 『국사』는 몇 개의 표기 유형이 있음을 살필 수 있다.⁹⁾ 첫째는 ‘국사’라는 명칭을 단독으로 표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사’와 그 종속(부속) 개념인 ‘本記(또는 □□본기)’를 병기하는 것이며,

셋째는 ‘본기’만으로 표기하는 것이고, 넷째는 ‘史傳’을 ‘국사’의 동의어나 이칭으로 기술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국사’와 ‘史臣’을 병기하는 방식이다. 정리하면 ‘국사’란 명칭 외에도 ‘본기’·‘사전’·‘사신’이라는 용어가 동의어 내지 종속어로 활용되었다. 특히 ‘본기’·‘사전’·‘사신’은 ‘국사’라는 용어와 병기되거나 또는 그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조목에서 출전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¹⁰⁾

한편 『삼국유사』에는 『국사』가 언급되지 않은 조목에서도 「본기」와 「사전」, 그리고 「사신」과 유사한 용어인 「史臣之論」이 기술된 사례가 있는데, 이들도 대부분 『국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즉 「본기」는 「탐상」편의 「금관성 파사석탑」조에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국사』에 포함된 「본기」를 지칭한 것이며, 「사전」은 「기이」편의 「김부대왕」조에서 『국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기술되었는데, 「탐상」편의 「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조에서의 「사전」이 『국사』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을 고려하면, 이 역시 『국사』를 지칭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신」과 유사한 「사신지론」이란 표현이 「기이」편 「김부대왕」조에 기술되어 있는데, 「사신지론」이 『국사』의 동의어내지 종속적(부속적) 개념으로 사용된 「사전」과 같은 문장에서 동일한 의미로 기술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언급한 「사신」이 『국사』의 종속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부대왕」조의 「사신지론」 역시 『국사』와 관련된 용어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삼국유사』에는 「사신지론」이나 「사신」외에도 그와 유사한 「史論」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는 「사신지론」을 약칭한 것으로 생각되기에 역시 『국사』와 연관된 용어라 할 수 있다. 결국 『삼국유사』에 기술된 「본기」·「사전」·「사신」류의 용어들은 「국사」라는 명칭과 함께 「국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¹⁾

9) 『삼국유사』의 『국사』 인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구를 통해서 검토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성과를 수용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국사』 인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연구 성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차광호, 앞의 논문, 2016.

10) 차광호, 앞의 논문, 132~133쪽.

11) 차광호, 앞의 논문, 133~139쪽.

다음은 『삼국사기』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삼국유사』에서 『삼국사기』가 언급된 것은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조가 유일한데 백제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내용이다.

부여군은 전백제의 왕도이다. 혹은 소부리군이라고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의 성왕 26년 무오 봄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라고 한다. 注에서 말하기를 “그 지명을 소부리라고 하니 사비는 지금의 고성진이며 소부리는 부여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했다. 이상은 주이다.¹²⁾

그런데 위의 『삼국사기』 인용 내용은 실제 이 책의 해당 기사와 비교할 때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삼국유사』는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한 것을 ‘성왕 26년 무오 봄’이라고 하였는데,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조에는 ‘16년 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¹³⁾ 또한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의 ‘주’에서 인용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정작 『삼국사기』의 해당 기사에는 이 부분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조에 언급된 ‘삼국사기’는 독립된 서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삼국사의 기록’이라는 의미로 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삼국유사』의 찬자는 『삼국사기』를 전혀 참고 인용하지 않은 것일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제작 연대의 격차가 대략 150여년에 불과하고, 두 역사서가 모두 삼국시대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무신집권기에도 『삼국사기』가 ‘국사’라고 불리며 정사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¹⁴⁾ 『삼국유사』의 찬자가 『삼국사기』를 참고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하지만 ‘삼국사기’라는 명칭은 『삼국유사』의 「기이」편 ‘남부여 전백제 북부여’조에만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다.

12) 『三國遺事』 「紀異」 南扶餘前百濟北扶餘, “扶餘郡者 前百濟王都也 或稱所夫里郡 按三國史記 百濟聖王二十六年戊午春 移都於泗泚 國號南扶餘 注曰 其地名所夫里 泗泚今之古省津也 所夫里者 扶餘之別號也 已上注”.

13) 『三國史記』 「百濟本紀」 ‘聖王’ 十六年, “十六年春 移都於泗泚[一名所夫里] 國號南扶餘”.

14) 『東國李相國集』 卷第三 古律詩 東明王篇并序, “金公富軾重撰國史”.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삼국유사』의 찬자는 『삼국사기』를 ‘삼국사기’라고 하지 않고 별도의 명칭으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사신」류의 용어들이다.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라고 서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몇 개 있다. 앞서 언급한 ‘선도성모 수회불사’조의 ‘국사사신’, ‘제이 남해왕’조의 ‘사론’, ‘김부대왕’조의 ‘사신지론’과 ‘사론’, ‘후백제 견훤’조의 ‘사론’에서 인용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사신」류의 전거를 통해서 인용된 내용은 『삼국사기』의 해당 기사와 거의 일치한다. 특히 이들은 『삼국사기』의 ‘論曰’로 표기된 사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출전을 『삼국사기』로 특정할 수 있다.¹⁵⁾ 결국 『삼국유사』의 찬자는 『삼국사기』를 인용하면서 ‘삼국사기’라는 서명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사신’이나 ‘사론’, ‘사신지론’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출전을 표기한 것이 아닐까 한다.¹⁶⁾

이처럼 『삼국유사』에서 『국사』는 그 서명이 단독으로 표기되거나, 「본기」, 「사전」, 「사신」류의 용어로 기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삼국사기』는 ‘삼국사기’란 표현이 1회 기술되었지만 이는 『삼국사기』보다 『삼국사』를 지칭했을 가능성이 크며, 『삼국유사』에서 『삼국사기』는 ‘사신’이나 ‘사신지론’, ‘사론’과 같은 「사신」류의 형태로만 표기되었다는 점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를 표기하는 방식은 『국사』나 『삼국사기』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표 2>를 참고하면 『삼국사』의 표기 방식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삼국사’라는 용어를 단독으로 기술하는 것인데 총 10군데 중 7회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되었다.

둘째는 ‘삼국사’라는 용어를 ‘傳’의 형태와 병기하는 경우이다. ‘후백제 견훤’조의 ‘삼국사 본전’과 ‘원광서학’조의 ‘삼국사 열전’이 여기에 해당한다.

15) 차광호, 앞의 논문, 138쪽.

16) 이는 『삼국유사』 찬자의 『삼국사기』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국사』, 『삼국사』, 『삼국사기』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삼국사 본전에는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함통 8년 정해에 태어났다. 본래의 성은 이씨였는데 뒤에 견으로 성씨를 삼았다. 부친인 아자개는 농사지어 생활했는데, 광개 연간에 사불성[지금의 상주]에 웅거해 스스로 장군이라고 일컬었다. 자식이 네 명인데 모두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그 중에서 견훤은 남보다 뛰어나고 지략이 많았다”라고 하였다.¹⁷⁾

‘후백제 견훤’조는 『삼국사』외에도 『고기』나 「이제가기」, 「사론」과 같은 전거를 인용해서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이중 ‘삼국사 본전’과 「사론」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언급된 「사론」은 『삼국사기』에서 인용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고,¹⁸⁾ 아울러 『삼국사기』를 『삼국사』로 약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국사 본전’이 『삼국사기』를 지칭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국사 본전’에서 인용된 내용과 『삼국사기』 「열전」의 ‘견훤’조를 비교하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즉 『삼국유사』는 견훤의 출신과 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데 비해 『삼국사기』의 관련 내용은 매우 축약되어 있다. 또한 ‘함통 8년’과 같은 시기 표현은 『삼국유사』에서만 확인된다.¹⁹⁾ 따라서 내용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삼국사 본전’과 『삼국사기』와의 관계에 대한 답을 얻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출전의 표기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상기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우선 ‘삼국사 본전’이란 표현에서 ‘삼국사’와 ‘본전’은 종속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래의 기사를 통해서 유사한 사례를 살필 수 있다.

17) 『三國遺事』 「紀異」 後百濟甄萱, “三國史本傳云甄萱尙州加恩縣人也 咸通八年丁亥生本姓李氏 後以甄爲氏 父阿慈介 以農自活 光啓中 據沙弗城[今尙州] 自稱將軍 有四子 皆知名於世 萱號傑出 多智略”.

18) 사론으로 시작되는 내용은 『삼국사기』 「열전」 ‘견훤’조 말미의 ‘論曰’로 시작되는 부분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사론 부분은 『삼국사기』에서 인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 때문에 ‘삼국사 본전’을 『구삼국사』의 ‘견훤전’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이희관,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정상의 몇 가지 문제」,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사, 2000.

진평왕 22년 경신(600년)[삼국사에는 다음해 신유에 왔다고 한다]에 법사가 행장을 꾸려 돌아오려고 했는데, 마침 중국에 왔던 조빙사를 따라서 귀국하였다. (중략), 또한 삼국사 열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어진 선비 귀산은 사랑부 사람이다.”²⁰⁾

위 사료는 「의해」편 ‘원광서학’조에서 『삼국사』가 언급된 부분이다. 이 조목에서 『삼국사』는 ‘삼국사’와 ‘삼국사 열전’의 형태로 두 번 언급되었다. 앞에서는 ‘삼국사’라고 하였고, 뒤에서는 ‘삼국사 열전’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열전’ 역시 ‘삼국사’에 종속된 개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국유사』의 찬자가 ‘본전’이나 ‘열전’과 같이 『삼국사』에 부속된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 용어 앞에 ‘삼국사’라는 명칭을 병기하고 있다는 점인데, ‘후백제 견훤’조도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사론’이 ‘삼국사’에 종속된 용어라면, ‘삼국사 본전’이나 ‘삼국사 열전’과 같이 ‘삼국사’라는 용어와 ‘사론’을 조합해서 ‘삼국사 사론’이라고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국유사』에서는 『삼국사』를 인용한 모든 부분에서 ‘삼국사’라는 명칭을 빠지지 않고 기술하는 규칙성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찬자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삼국사’라는 용어가 결여된 「사론」은 『삼국사』와의 관련성이 희박하다.

셋째는 ‘전삼국사’와 같은 표기 방식이다. 「피은」편의 ‘신충패관’조를 참고할 수 있다.

이는 전삼국사에 실린 것과 같지 않으니, 양쪽을 다 실어 의심을 덜고자 한다.²¹⁾

『삼국유사』의 ‘전삼국사’ 용례는 ‘신충패관’조가 유일한데, ‘前’을 ‘舊’와 동일하게 인식할 때 『구삼국사』의 결정적인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표현이다. 하지만 ‘전삼국사’에서 ‘전’은 앞에 기술된 내

20) 『三國遺事』「義解」圓光西學, “眞平王二十二年庚申[三國史云 明年辛酉來] 師將理策東還 乃隨中國朝聘使還國 -(중략)- 又三國史列傳云 賢士貴山者 沙梁部人也”.

21) 『三國遺事』「避隱」信忠掛冠, “與前三國史所載不同 兩存之闕疑”.

용을 지칭하는 지시어로도 해석될 수 있다. 즉 ‘신충패관’조의 앞부분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신충패관’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록을 인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것은 출전에 관한 언급 없이 신충과 효성왕의 일화, 경덕왕 때에 신충이 은둔해서 단속사를 세웠다는 일화를 전하고 있으며, 뒤의 것은 「別記」를 인용해 경덕왕 때에 직장 이준이 단속사를 세운 일화를 기술하였다. 결국 단속사의 창건 주체에 관해서 신충 설과 이준 설의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삼국유사』의 찬자는 어느 설이 맞는지를 고증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조목의 말미에 ‘전삼국사’ 이하의 문장을 삽입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문맥을 고려하면, ‘전삼국사’는 ‘신충패관’조의 전반부에 언급된 『삼국사』의 인용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앞에 기록된 신충 관련 내용은 『삼국사』에서 인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유사』에서 『삼국사』를 인용할 때 ‘삼국사’라는 용어를 생략하지 않고 반드시 기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려시대의 기록에서 ‘전삼국사’의 용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

이상에서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와 『국사』, 『삼국사기』의 표기 방식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들 세 전거를 표기하는 각각의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삼국유사』 인용 『삼국사』·『국사』·『삼국사기』의 출전 표기 특징

구분	출전 표기 방식	출전 표기 사례	특징
삼국사	① 三國史	三國史	◦ ‘삼국사’라는 용어를 빠짐없이 기술 ◦ 종속어를 ‘傳’의 형태로 기술
	② 三國史 + 종속적 용어	三國史 本傳 / 三國史 列傳	
	③ 지시적 표현 + 三國史	前三國史	

국사	① 國史	國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사’라는 용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음 ◦ 종속어를 ‘記’의 형태로 기술 ◦ 종속어를 ‘史臣’류의 형태로 기술
	② 國史 + □□本記	國史 高麗本記	
	③ □□本記	高麗本記	
	④ 史傳	史傳	
	⑤ 國史 + 史臣	國史 史臣	
삼국사기	① 三國史記	三國史記	◦ ‘史臣’류의 형태로 기술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는 『국사』나 『삼국사기』와 비교해 볼 때 적어도 표기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선 『삼국유사』의 찬자는 『삼국사』를 인용하면서 ‘삼국사’라는 명칭을 빠짐없이 기술해서 출처를 명확히 하였다.²²⁾ 또한 ‘삼국사’에 병기하는 종속어로 ‘본전’이나 ‘열전’과 같은 ‘傳’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반면에 『국사』를 인용할 때는 ‘국사’란 명칭을 생략하고 종속어로서만 표기하는 경우를 두었으며, 종속어로는 ‘記’와 ‘史臣’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삼국사기』라는 서명은 단 한차례만 등장하기에 표기의 규칙성을 찾기 어렵지만, 이것은 김부식 등이 편찬한 『삼국사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삼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삼국사의 기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삼국유사』의 찬자는 『삼국사기』를 인용하면서 출전을 「사신」류의 용어로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삼국사기』와 『국사』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결국 출전을 표기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삼국유사』의 찬자는 『삼국사』를 『국사』 및 『삼국사기』와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한편 『삼국유사』에서 『삼국사』를 인용, 참고하면서 ‘삼국사’라고 출전을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부분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만을 인식하고자 한다.

Ⅲ. 『삼국유사』의 『삼국사』 인용 방식: 『삼국사기』와의 내용 비교

출전의 표기 방식에 있어서 『삼국사』가 『국사』나 『삼국사기』와 구분된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에도 그러한 점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와 『삼국사기』의 관련 내용을 각각 인용문과 원전의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도록 하겠다. 만약 『삼국사』가 『삼국사기』라면 두 사서는 문장이나 표현 등에서 각각 인용문과 원전의 특징을 나타낼 것이고, 그러하지 않다면 거기에 맞는 특징을 보일 것이다. 『삼국사』와 『삼국사기』의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삼국사』와 『삼국사기』의 내용 비교

구분				비교 사항
삼국사		삼국사기		
수록 정보	내용	수록 정보	내용	
기이/ 마한	㉔명주는 옛날의 예국인 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穢王印을 발견해 바쳤고, 춘주는 예전의 우수주인 데 옛날의 맥국임			◦ 삼국사기에 해당 내용 없음
기이/ 말갈 발해	㉔의봉 3년 고종 무인 고려 殘孽이 類聚해 북 으로 태백산밑에 의거해 국호를 발해라 함	열전 제 육 최치 원	의봉 3년에 고구려인 들을 하남과 농우에 옮김. 고구려 殘孽이 類聚해 북으로 태백 산 밑에 의거해 국호 를 발해라 함	◦ 일부 내용이 유 사하나 주제와 문 맥이 상이 ◦ 삼국사기에 ‘고종 무인’이 없음. 삼국 사는 ‘고려’, 삼국 사기는 ‘고구려’로 표기
	㉔개원 20년 明皇이 장 수를 보내 토벌			◦ 삼국사기에 해당 내용 없음
	㉔성덕왕 32년 현종 갑 술, 발해 말갈이 바다를	신라 본 기 제팔	32년 가을 7월에 발 해 말갈이 바다를 건	◦ 일부 내용이 유 사하나 주제와 문

구분				비교 사항
삼국사		삼국사기		
수록 정보	내용	수록 정보	내용	
건너 등주를 침범하니 현종이 이를 토벌		성 덕 왕 삼 십 이 년 추칠 월	너 등주에 침입하자, 당 현종은 太僕員外卿 김사란을 신라로 귀국하게 함. 왕에게 ‘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를 더해 제수하고는 군사를 일으켜 말갈의 남쪽 도읍을 치게 함. 군사를 출병하니 마침 큰 눈이 쌓이고 산길이 험해 절반이 넘는 병사가 죽고 아무 공 없이 돌아옴	맥이 상이
		열전 제삼 김유신	개원 21년 당에서 사신을 보내서 이르길, ‘말갈발해가 밖으로는 변한이라고 칭하면서도 안으로는 교활한 마음을 품고 있어, 지금 군사를 내어 죄를 묻고자 하니, 경 또한 군사를 일으키되, 김유신의 손자 윤중을 차출해 장수로 삼아라’라고 하며, 윤중에게 금과 비단을 하사. 대왕이 윤중과 아우 윤문 등 네 장군에게 명하여 당병과 합세해 발해를 정벌케 함	◦ 일부 내용이 유사하나 주제와 문맥이 상이
		열전 제육 최치원	개원 20년에 발해가 당에 원한을 품고 불시에 등주를 습격해 자사 위준을 살해. 이에 명황제께서 크게 노해 하행성과 태복경 김사란에게 명해	◦ 일부 내용이 유사하나 주제와 문맥이 상이 ◦ 삼국사는 ‘성덕왕 32년 현종 갑술’, 삼국사기에는 ‘개원 20년’으로 표기

구분				비교 사항
삼국사		삼국사기		
수록 정보	내용	수록 정보	내용	
			군사를 내어 바다를 건너 토벌케 함. 아울러 우리 임금에게 지위를 더해 ‘正大尉持節充寧海軍事雞林州大都督’으로 삼아 참전케 했는데, 겨울에 눈이 쌓여 양국 군사가 추위에 시달리므로 직명을 내려 회군케 함	◦ 일부 내용이 유사하나 문맥이 상이
	④백제 말년에 발해말갈과 신라가 백제 땅을 나눈다	백제 분기 제육의 자 왕당 고종인 덕이년	무후가 그의 손자 敬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케 하려 했으나, 그 지역이 이미 신라·발해말갈에 의해 분할 통치되고 있었으므로, 나라의 계통이 마침내 단절됨	
기이/ 제이 남해왕	④신라에서는 왕을 거서간이라고 불렀으니 辰言으로 왕이다. 혹은 귀인을 부르는 칭호라고 하며, 혹은 차차웅 또는 자충이라 함	신라 분기 제일시조 혁거세 거서간	거서간은 진한 말로 임금을 뜻함[혹은 귀인을 칭하는 말]	◦ 일부 내용 유사 ◦ 차차웅과 자충은 삼국사에만 기술 ◦ 귀인 부분은 삼국사에는 본문, 삼국사기에는 분주에 서술됨
기이/ 무왕	④무왕을 법왕의 아들이라 함	백제 분기 제오 무왕	무왕의 이름은 璋이니 법왕의 아들이다.	◦ 일부 내용 유사
기이/ 후백제 견훤	④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함통 8년 정해에 출생. 본성은 이, 후에 견으로 성씨를 삼음. 부친 아자개는 농민으로 光啓中에 사불성에서 장군을 자칭. 그의 四子 모두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그 중 견훤이 뛰	열전 제십 견훤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 본래 성은 이씨, 나중에 견으로 성씨를 삼음. 부친 아자개는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뒤에 집안을 일으켜 장군이 됨	◦ 일부 내용 유사 ◦ ‘함통 8년 정해에 출생’, ‘광계중’, ‘사불성’, ‘아자개 자식들의 출중함’에 관한 사항은 삼국사에만 기술

구분				비교 사항
삼국사		삼국사기		
수록 정보	내용	수록 정보	내용	
	어남			
기이/ 가락국 기	㉠구형왕은 양 무제 중 대통 4년 임자에 신라에 항복	신라 본 기 제사 법흥왕	19년, 금관국의 왕 김구해가 왕비와 세 아들인 맏아들 노중, 둘째 무덕, 막내 무력 과 더불어 나라의 보 물을 갖고 항복. 임금 이 예를 갖추어 대접 하고 상등의 직위를 하사, 금관국을 식읍 으로 삼게 함. 무력은 벼슬이 각간에 오름	◦ 주제는 유사하나 기술 내용은 상이 ◦ ‘구형왕’과 ‘양 무 제 중대통 4년 임 자’라는 표현은 삼 국사에만 기술
의해/ 원광서 학	㉡원광이 신유년에 귀국 함	신라 본 기 제사 진평왕	22년에 고승 원광이 조빙사 나마 제문과 대사 형천을 따라 돌 아옴	◦삼국사는 ‘신유년’, 삼국사기는 ‘진평왕 22년’에 원광이 귀 국했다고 기술
	㉢가슬갑에 거처한 원광 이 귀산과 추형에게 세 속오계를 전함. 훗날 두 사람은 전쟁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움	열전 제 오 귀산	원광법사가 가실사에 있는데 귀산 등이 계 울을 청하니 전함. 진 평왕 건복 24년 임술 (602) 가을 8월에 백 제가 쳐들어오니 귀 산 등이 나아가 물리 침. 이들이 귀환하던 중 부상으로 사망하 니 왕과 신하들이 장 사지내고 관직을 추 증함	◦ 주제는 유사하나 기술 내용은 상이 ◦ 삼국사에는 ‘가슬 갑’,으로 삼국사기 에는 ‘가실사’로 기 록 ◦ 삼국사에는 귀산 과 추형이 전공을 세우는 사항이 매 우 간략하게 기술
피은/ 신충패 관	㉣효성왕과 경덕왕 때의 신충 일화	신라본 기 제구 경덕왕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웅이 사직. 왕이 대 나마 이순을 총애했 는데 갑자기 세상을 피해 입산함, 그는 승 려가 되어 단속사를 세움. 후에 왕이 풍악 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는 찾아가 풍악 을 그칠 것을 훈계함	◦ 서로 다른 내용 이 많음

우선 「기이」편의 ‘마한’조목에 수록된 『삼국사』의 내용과 비교되는 『삼국사기』의 해당 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발해 말갈’조목에 수록된 『삼국사』의 기사는 ㉠·㉡·㉢·㉣의 네 개 주제로 구분된다. ㉠은 발해의 건국에 관한 것으로 유사한 내용이 『삼국사기』 「열전」 ‘최치원’조에 수록되어 있다. ‘잔열’이나 ‘태백산’과 같이 용어와 문장이 거의 일치하지만, 당이 고구려인을 하남과 농우로 이주시킨 사항은 『삼국사기』에만 기술되어 있고, ‘고종 무인’이나 ‘고려’와 같은 표현은 『삼국사』에만 적혀 있다.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는 발해 무왕대에 일어난 당과의 교전을 ‘개원 20년’과 ‘성덕왕 32년 현종 갑술’, 즉 732년과 733(734)년으로 각각 구분해서 기술하였다.²³⁾ ㉡는 전자에 해당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사를 『삼국사기』에서 확인하기 어렵다.²⁴⁾ 『삼국사기』에는 ㉢와 유사한 내용이 세 군데 등장한다. 하지만 주제와 문맥을 고려할 때 『삼국사』와 차이가 있다. 『삼국사』는 ‘발해 말갈이 바다를 건너 등주를 침공하자 당 현종이 토벌하였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약술하였는데, 이에 비해서 『삼국사기』는 발해의 등주 침공으로 당이 신라에 구원을 요청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이다. ㉣의 내용도 『삼국사기』와 일부 유사하지만, 주제와 문맥의 측면에서 양쪽의 내용은 상이성이 더 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해 말갈’조의 『삼국사』 내용이 『삼국사기』에서 인용된 것이냐 하는 점인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즉 ㉠과 ㉢에서처럼 용어의 차이가 있고, ㉡의 내용을 『삼

-
- 23) ㉠·㉡·㉢에서 시기로 언급되는 ‘의봉 3년 고종 무인’이나 ‘개원 20년’, ‘성덕왕 32년 현종 갑술’은 논의의 대상이다. ‘의봉 3년’은 당 고종 29년인 678년으로 『삼국사』는 이 시기에 발해가 건국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건국시점을 698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에 보다 면밀한 고증이 요구된다. 또한 『삼국사』는 ‘개원 20년’과 ‘성덕왕 32년 현종 갑술’을 각각 발해와 당의 교전기로 이해하였다. ‘개원 20년’은 732년(발해 무왕 14년, 신라 성덕왕 31년, 당 현종 21년)이며, ‘성덕왕 32년’은 733년이고, 현종 갑술은 734년이다. 『구당서』에는 발해 무왕이 등주를 침공한 것이 732년이라 하였다. ‘성덕왕 32년(733)’과 ‘현종 갑술(734)’를 병기한 것이 『삼국유사』 찬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원전인 『삼국사』의 기록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24) 『삼국사기』 「열전」 ‘최치원’조에 ‘개원 20년’이라는 시기가 언급되지만, 발해의 등주 침공과 신라의 원군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의 내용과는 다르다.

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주제와 문맥적인 측면에서 볼 때 ㉔와 ㉕를 『삼국사기』에서 인용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²⁵⁾

다음은 ‘제이 남해왕’조의 『삼국사』 인용 부분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문장 배치나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 가령 ‘거서간이 귀인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삼국사』는 본문에 기술하였는데, 『삼국사기』는 분주에서 언급하였다. 또한 차차웅과 자충에 관한 사항은 『삼국사』에만 나타난다. 원전과 인용문의 관점에서 볼 때, 『삼국사』가 『삼국사기』를 참고했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삼국사기』가 『삼국사』를 인용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삼국사』가 『삼국사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왕’조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분주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삼국사기』에도 있다.

삼국사에는 이를 법왕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자세히 알 수 없다²⁶⁾

이 부분만을 놓고 보면 위의 『삼국사』는 『삼국사기』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무왕을 법왕의 아들이라고 기술한 내용이 『삼국사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5) 『삼국유사』 찬자의 첨삭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㉔와 ㉕에 언급된 내용(‘발해의 침공과 당의 반격’, ‘백제 말년에 발해 말갈과 신라가 백제 땅을 분할’)과 같이 간략한 사항을 기술하기 위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성덕왕’조나 「열전」의 ‘김유신’ 및 ‘최치원’조, 그리고 「백제본기」의 ‘의자왕’조를 참고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덕왕’조와 ‘김유신’조는 당과 발해의 교전보다는 당이 신라에 원군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삼국유사』의 찬자가 굳이 이 부분을 인용해서 ㉔를 기술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치원’조는 ‘개원 20년’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시기가 다르고 세부 내용도 차이가 있다. ㉕도 ‘의자왕’조를 참고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자왕’조의 해당 내용은 당의 측천무후가 부여용의 손자 경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려 했는데, 이미 발해 말갈과 신라가 그 땅을 분할 통치하고 있어서, 결국 백제의 계통이 단절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백제의 영토가 분할되었다는 사항만을 별도로 도출해 ㉕의 문장을 기술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26) 『三國遺事』 「紀異」 武王, “三國史云 是法王之子 而此傳之獨女之子 未詳”.

‘후백제 견훤’조에서는 ‘삼국사 본전’을 인용해서 견훤의 가계를 기술하였다. 이는 『삼국사기』 「열전」의 ‘견훤’조와 비교된다. 하지만 견훤이 함통 8년에 태어났다가 아자개가 광개 연간에 사불성에서 장군을 자칭했다는 것, 또한 아자개의 자식이 네 명이었던 것은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더욱이 『삼국사』는 시기와 장소를 『삼국사기』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삼국사』를 『삼국사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락국기’에 수록된 『삼국사』의 내용은 가야의 멸망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조와 유사하나, ‘김구해’라는 명칭 대신 ‘구형왕’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양 무제 중대통 4년 임자’라는 시대명을 기술하고 있어서 차이점도 있다. 만약 『삼국유사』의 찬자가 『삼국사기』를 참고했다면, 해당 부분은 ‘법흥왕 19년에 가야왕 김구해가 신라에 항복하였다’라고 기술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왕명과 시기가 다르다는 것은, 『삼국유사』 찬자의 주관적 첨삭이 있었다는 점을 가정해 보아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락국기’의 『삼국사』가 『삼국사기』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삼국유사』 「의해」편의 ‘원광서학’조에 수록된 『삼국사』는 『삼국사기』 「열전」 ‘귀산’조의 내용과 흡사한데, 두 사서가 모두 「열전」의 형태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삼국유사』의 기사는 아래와 같다.

또한 삼국사 열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어진 선비 귀산은 사랑부 사람이다. 같은 마을 추향과 벗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은 사군자와 더불어 교유하고자 기약하였으나, 먼저 마음을 바로 하고 몸을 지키지 않으면 곧 모욕당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자의 곁에서 도를 묻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때 원광법사가 수나라에서 돌아와 嘉瑟岬[加西라고도 하고 또 嘉栖라고도 하니 모두 우리말이다. 岬를 세속에서는 古尸라 하기 때문에, 古尸寺라 하니, 岬寺라는 말과 같다. 지금 운문사 동쪽으로 9천보쯤 되는 곳에 加西岬이 있는데, 혹은 嘉瑟岬이라고도 한다. 고개의 북쪽 골짜기에 절터가 있는데 바로 이곳이다.]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찾아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세속의 선비라 어리석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부디 한 말씀 내려주시면 평생 명심하며

실천하겠습니다.” 원광법사가 말하였다. “불교에는 보살계가 있는데, 그 조항이 열 가지나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남의 신화와 자식 된 몸이니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지금 세속에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계율이 있으니, 첫째는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효도로써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셋째는 신의로써 벼를 사귀는 것이고, 넷째는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는 것이고, 다섯째는 생물을 죽이되 가려서 죽이는 것이다. 너희들은 이를 실행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라.” 귀산 등이 말하였다. “다른 것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생물을 죽이되 가려서 죽이라는 말씀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六齋日과 봄, 여름에는 생물을 죽이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시기를 가리는 것이다. 가축을 죽이지 말아야 하니, 말, 소, 닭, 개 등을 말하는 것이다. 미물을 죽이지 말아야 하니, 고기가 한 점도 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물을 가리는 것이니, 이 또한 필요한 만큼만 죽이고 많이 죽이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은 세속의 좋은 계이다.” 귀산 등이 말하였다. “지금부터 이 말씀을 받들어 행하여 감히 어기지 않겠습니다.” ㉞ 훗날 두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²⁷⁾

위의 『삼국사』 인용 내용은 귀산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삼국유사』의 찬자는 서두에 ‘삼국사 열전’이라고 출전을 밝혔다. 그 내용은 크게 ㉠-㉡-㉢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은 귀산이 추향과 함께 ‘정심지신’을 하기 위해 현자의 도를 묻고자 결의하는 부분이고, ㉡은 가슬갑에 있는 원광을 찾아가서 계율을 청해 받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은 귀산과 추향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이다. 세 부분 중 원광에게 세속오계를 청해 받는 ㉡부분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27) 『三國遺事』「義解」圓光西學, “又三國史列傳云 賢士貴山者 沙梁部人也 與同里箒項爲友 二人相謂曰 我等期與士君子遊 而不先正心持身 則恐不免招辱 盍問道於賢者之側乎 時聞圓光法師入隋回 寓止嘉瑟岬[或作加西 又嘉栖 皆方言也 岬 俗云 古尸 故或云 古尸寺 猶言岬寺也 今雲門寺東九千步許 有加西峴 或云 嘉瑟峴 峴之北洞有寺基是也] 二人詣門進告曰 俗士顛蒙 無所知識 願賜一言 以爲終身之誡 光曰 佛教有菩薩戒 其別有十 若等爲人臣子 恐不能堪 今有世俗五戒 一曰事君以忠 二曰事親以孝 三曰交友有信 四曰臨戰無退 五曰殺生有擇 若等行之無忽 貴山等曰 他則既受命矣 所謂殺生有擇 特未曉也 光曰 六齋日春夏月不殺 是擇時也 不殺使畜 謂馬牛雞犬 不殺細物 謂肉不足一臠 是擇物也 此亦唯其所用 不求多殺 此是世俗之善戒也 貴山等曰 自今以後 奉以周旋 不敢失墜 後二人從軍事 皆有奇功於國家”.

한편 이와 유사한 내용이 『삼국사기』 「열전」 ‘귀산’조에 실려 있다.

㉔귀산은 사양부 사람으로서 부친은 야간 무은이다. 귀산은 어려서부터 같은 부의 사람 추함과 벗이 되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말했다. “우리가 선비나 군자와 함께 교유하기를 기대하면서도,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지 않는다면 욕됨을 면치 못할까 두려우니, 어찌 어진 사람의 곁에서 도를 배우지 않겠는가?” ㉕당시에 원광법사가 수나라에 유학을 다녀와서 加悉寺에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높은 예우를 받고 있었다. 귀산 등이 그 문하에 이르러 옷자락을 여미고 나아가 말하였다. “속세의 선비가 어리석고 몽매하여 아는 것이 없사오니, 한 말씀 해주시어 종신토록 계율로 삼게 해 주소서.” 법사가 말했다. “불가의 계율에 보살계가 있어 그것이 열 가지로 구별되어 있으나, 그대들이 남의 신하이기에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세속오계가 있으니, 첫째 임금을 섬기는 데는 충성으로 하고, 둘째 부모를 모시는 데는 효성으로써 하고, 셋째 벗과 사귀는데 신의로써 하고, 넷째 전쟁에 임하여서는 물러서지 않으며, 다섯째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를 실행함에 소홀함이 없게 하라!” 귀산 등이 말했다. “다른 것은 말씀대로 하겠습니지만, 이른바 ‘살아있는 것을 죽일 때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만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법사가 대답했다. “육재일과 봄, 여름에는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는 시기를 택함이다. 부리는 가축은 죽이지 않는 것이니 말, 소, 닭, 개를 이르는 것이며, 작은 생물은 죽이지 않는 것이니 고기 한 점도 되지 못하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이는 대상을 택함이다. 이와 같이 오직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그 이상으로 많이 죽이지 말 것이니, 이는 세속의 좋은 계율이라고 할 만하다.” 귀산 등이 말했다. “지금 이후로는 이 가르침을 받들어 두루 실행하고, 감히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㉖진평왕 건복 24년 임술 가을 8월에 백제가 크게 병사를 일으켜 쳐들어와서 阿莫城[莫을 暮로도 쓴다]을 포위하였다. 왕은 장군 파진간 乾品, 武梨屈, 伊梨伐과 급간 武殷, 比梨耶 등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막게 하였다. 귀산과 추항은 함께 少監의 직으로 전선에 나갔다. 백제가 패하여 천산의 못으로 물러나 병사를 숨겨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군대가 진격하다가 힘이 다하여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이때 무은이 후군이 되어 대오의 맨 뒤에 있었는데, 복병이 갑자기 튀어나와 같고리로 그를 잡아당겨 떨어뜨렸다. 귀산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내 일찍이 스승에게 듣기를 ‘무사는 적군을 만나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찌 감히 달아나겠는가?” 그는 적군 수십 명을 쳐 죽이고 자기 말에 아버지를 태워 탈출하게 한 다음, 추항과 함께 창을 휘두르며 힘껏 싸웠다. 모든 군사들이 이를 보고 떨쳐나가 공격하니, 쓰러진 시체가 들판을 메우고 말 한 필, 수레 한 대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 귀산 등은 온 몸에 창칼의 상

처를 입고 돌아오는 도중에 죽었다. 왕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阿那의 들에서 그들을 맞이하였다. 왕은 그들의 시체 앞으로 나아가 통곡하고, 예를 갖추어 장사 지냈으며, 귀산에게는 나마를, 추항에게는 대사를 추증하였다.²⁸⁾

위의 『삼국사기』 내용도 ㉠·㉡·㉢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삼국유사』의 ㉠·㉡·㉢과 주제적으로 일치한다. 하지만 분량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삼국유사』의 ‘원광서학’조는 귀산 등이 원광에게 세속오계를 받는 장면인 ㉡의 분량이 가장 많았는데, 이에 비해서 『삼국사기』의 ‘귀산’조는 ㉡와 ㉢의 분량이 많았다. ㉡는 ㉡와 같이 세속오계를 받는 내용이고 ㉢은 ㉡와 같이 귀산과 추항이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는 내용이다. ‘원광서학’조에서는 공을 세우는 내용이 ㉡와 같이 약속되어 있지만, ‘귀산’조에서는 ㉢과 같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비중을 두었다.

이러한 분량의 차이 외에도 용어 사용의 상이성도 살필 수 있다. ‘귀산’조에서는 수에서 귀국한 원광이 ‘가실사’에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광서학’조에서는 ‘가슬갑’이라고 하였다. 특히 『삼국유사』의 찬자는 여기에 분주를 삽입해 가슬갑의 어원과 의미, 그리고 고려시대의 위치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슬갑’은 『삼국유사』의 찬자가 임의로 기술한 용어가 아니라, 원전인 『삼국사』 「열전」에서 직접

28) 『三國史記』 「列傳」 貴山, “貴山沙梁部人也 父武殷阿干 貴山少與部人箒項爲友 二人相謂曰 我等期與士君子遊 而不先正心修身 則恐不免於招辱 盍問道於賢者之側乎 時圓光法師 入隋遊學 還居加悉寺 爲時人所尊禮 貴山等詣門 擲衣進告曰 俗士顛蒙 無所知識 願賜一言 以爲終身之誡 法師曰 佛戒有菩薩戒 其別有十 若等爲人臣子 恐不能堪 今有世俗五戒 一曰事君以忠 二曰事親以孝 三曰交友以信 四曰臨戰無退 五曰殺生有擇 若等 行之無忽 貴山等曰 他則既受命矣 所謂殺生有擇 獨未曉也 師曰 六齋日春夏月不殺 是擇時也 不殺使畜 謂馬牛雞犬 不殺細物 謂肉不足一饘 是擇物也 如此 唯其所用 不求多殺 此可謂世俗之善戒也 貴山等曰 自今已後 奉以周旋 不敢失墜 眞平王建福十九四年壬戌秋八月 百濟大發兵 來圍阿莫[莫 一作暮]城 王使將軍波珍干乾品武梨屈伊梨伐級干武殷比梨耶等 領兵拒之 貴山箒項 并以少監赴焉 百濟敗 退於泉山之澤 伏兵以待之 我軍進擊 力困引還 時 武殷爲殿 立於軍尾 伏猝出 鉤而下之 貴山大言曰 吾嘗聞之師曰 士當軍無退 豈敢奔北乎 擊殺賊數十人 以己馬出父 與箒項揮戈力鬪 諸軍見之奮擊 橫尸滿野 匹馬隻輪 無反者 貴山等金瘡滿身 半路而卒 王與群臣 迎於阿那之野 臨尸痛哭 以禮殯葬 追賜位貴山奈麻 箒項大舍”.

인용한 단어일 가능성이 크다. 원전에 없는 새로운 용어를 추가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장문의 분주를 삽입했다고 보기보다는, 원전의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분주를 넣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귀산’조에 ‘가슬갑’이 아닌 ‘가실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문단 간의 분량 차이와 함께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 「열전」이 『삼국사기』가 아닐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끝으로 『삼국유사』 「피은」편 ‘신충패관’조의 『삼국사』 인용 부분이 있다.

효성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현사 신충과 궁전 뜰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었는데, 일찍이 일러 말하길, “훗날에 만약 경을 잇는다면, 저 잣나무와 같으리라.” 라고 하였다. 신충은 일어나 절하였다. 몇 달이 지나 왕이 즉위하여 공신들에게 상을 내리는데, 신충을 잊고 그 차례에 넣지 않았다. 신충이 원망하여 노래를 짓고 잣나무에 붙이자 나무는 곧 노랗게 시들었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살펴 보게 하였더니 노래를 얻어서 바쳤다. (왕이) 크게 놀라 말하길, “천하의 萬機가 매우 많고 번거로워, 角弓을 잊었구나!” 하고는, 이내 그를 불러서 벼슬과 녹봉을 주니 잣나무가 되살아났다. 노래는 다음과 같다. “질 좋은 잣나무가, 가을이 채 안 되어 떨어지니, 너를 어찌 잊으랴 말씀하신, 우러러 보던 그 얼굴이 변하셨네. 달이 그림자 진 옛 연못의, 흐르는 모래의 물결인양, 모습이야 바라보나, 세상 모두 잃은 처지여라.” 後句는 없어졌다. 이로 인하여 총애함이 兩朝에 두터웠다. 경덕왕[왕은 곧 효성왕의 아우이다] 22년 계묘에 신충은 두 벗과 서로 약속하여 벼슬에서 사퇴하고 남악에 들어갔다. 두 번을 불렀으나 나오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고 사문이 되었다. 왕을 위해 단속사를 세우고 살았다. 죽을 때까지 은거하길 원하며 대왕의 복을 빌고자 하니, 왕이 그것을 허락하였다. (왕의) 진영을 모셔두었는데 금당 뒷벽에 있는 것이 이것이다. 남쪽에 俗休라 부르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 잘못되어 소화리라 이른다.[三和尚傳을 살펴보면, 信忠奉聖寺가 있는데 이것과 서로 혼동된다. 따져보면 신문의 치세는 경덕과 이미 백여 년이나 되는데, 하물며 신문왕과 신충의 일은 지난 세상의 일이니, 이 신충이 아님이 명백하다. 마땅히 상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別記에 이르기를, 경덕왕때에 직장 이준[고승전에서는 이순이라 하였다]이 일찍이 발원하기를, 나이가 知命에 이르면 모름지기 출가하여 불사를 창건하리라 하였다. 천보 7년 무자에 나이 50세가 되니, 다시 조연소사를 고쳐 큰 절로 하고는 이름을 단속사라 하였다. 그 자신도 또한 머리를 깎고 법명을 弘宏

長老라 하고, 절에서 20년간 머무르다 죽었다. (이는) 앞의 삼국사에 실린 것과 같지 않으니, 양쪽을 다 실어 의심을 덜고자 한다.²⁹⁾

위의 ‘신충괘관’조는 두 개의 전거를 인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삼국사』를 인용한 것으로 효성왕과 신충의 일화, 그리고 경덕왕 때에 신충이 출가해서 단속사를 세웠다는 일화를 전한다. 참고로 해당 내용에는 출전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조목의 말미에 ‘전삼국사(앞의 삼국사)’라는 표현이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삼국사』에서 인용되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릴 수 있다. 둘째는 「별기」를 인용한 것인데 앞의 『삼국사』와는 다른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즉 경덕왕 때에 직장 이준이 단속사를 세웠다는 내용이다. 단속사의 건립 주체가 신충과 이준으로 양립되는 상황에서, 사실을 고증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삼국유사』의 찬자는 결국 두 자료를 모두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도 ‘신충괘관’조와 비슷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상대등 신충과 시중 김웅이 사직하였다. 대나마 이순은 임금이 총애하는 신하였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피하여 산으로 들어갔는데 여러 번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임금을 위하여 단속사를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 후에 임금이 풍악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즉시 궁문으로 찾아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제가 듣건대 옛날에 桀과 紂가 주색에 빠지고 음탕한 쾌락에

29) 『三國遺事』「避隱」信忠掛冠, “孝成王潛邸時 與賢士信忠 園基於宮庭栢樹下 嘗謂曰 他日若忘卿 有如栢樹 信忠興拜 隔數月 王卽位 賞功臣 忘忠而不第之 忠怨而作歌 帖於栢樹 樹忽黃悴 王怪使審之 得歌獻之 大驚曰 萬機鞅掌 幾忘乎角弓 乃召之賜爵祿 栢樹乃蘇 歌曰 物叱好支栢史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汝於多支行齊教因隱 仰頓隱面矣 改衣賜乎隱冬矣也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貌史沙叱望阿乃 世理都 之叱逸烏隱第也 後句亡 由是寵現於兩朝 景德王[王卽孝成之弟也] 二十二年癸卯 忠與二友相約 掛冠入南岳 再徵不就 落髮爲沙門 爲王創斷俗寺居焉 願終身立壑 以奉福大王 王許之 留眞在金堂後壁是也 南有村名俗休 今訛云小花里[按三和尚傳 有信忠奉聖寺 與此相混 然計其神文之世 距景德已百餘年 況神文與信忠 乃宿世之事 則非此信忠明矣 宜詳之] 又別記云 景德王代 有直長李俊[高僧傳作李純] 早曾發願 年至知命 須出家創佛寺 天寶七年戊子 年登五十矣 改創槽淵小寺爲大利 名斷俗寺 身亦削髮 法名孔宏長老 住寺二十年乃卒 與前三國史所載不同 兩存之闕疑”.

빠져 그칠 줄을 모르다가, 이로 인해 정치가 문란해지고 나라가 망하였다고 합니다. 앞에 가는 수레바퀴가 없어지면 뒤 수레는 마땅히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엮드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허물을 고치시고 스스로 새롭게 바꾸어 국가를 영원히 보존하소서.” 임금은 이 말을 듣고 감복하여 풍악을 그치게 하고 그를 내실로 들게 하여 도리의 오묘함과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며칠 동안이나 들었다.³⁰⁾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덕왕 22년’의 기사에는 ‘신충패관’조와 유사한 두 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중 하나는 신충이 사직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순이 단속사를 세우고 출가하였는데 풍악에 빠진 경덕왕을 찾아가 충언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신충이 사직하였다는 내용은 ‘신충패관’조의 『삼국사』 인용 부분과 시기나 주제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충패관’조의 『삼국사』를 『삼국사기』로 볼 수는 없다. ‘상대등 신충이 사직했다’라는 ‘경덕왕 22년’조의 짙막한 문장만을 갖고서 ‘효성왕과 신충의 일화’, 그리고 ‘신충이 출가해서 단속사를 세운 일화’를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이순이 속세를 떠나 단속사를 세웠다’라는 내용은 ‘신충패관’조의 「별기」 인용 부분과 유사하다. 다만 「별기」에는 ‘이순’이 아니라 ‘이준’이라고 하였는데 『삼국유사』 찬자는 분주에서 ‘이준’과 ‘이순’이 같은 인물이라고 하였다. 한편 『삼국사기』는 단속사를 세우고 출가한 이순이 경덕왕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충언하는 일화를 비중 있게 서술하였는데, 「별기」에는 이 부분이 없고 이준이 단속사를 세우고 출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적었다. 결국 『삼국사기』 「신라본기」 ‘경덕왕 22년’의 기사와 『삼국유사』의 ‘신충패관’조를 비교하면 신충이 경덕왕 22년에 사직하였고, 이준 또는 이순이라는 인물이 경덕왕대에 단속사를 세웠다는 사실만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나 내용, 분량적인 측면에서

30)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德王 二十二年 夏四月, “上大等信忠侍中金邕免 大奈麻李純爲王寵臣 忽一旦避世入山 累徵不就 剃髮爲僧 爲王創立斷俗寺 居之 後 聞王好樂 卽詣宮門 諫奏曰 臣聞 昔者 桀紂荒于酒色 淫樂不止 由是 政事凌遲 國家敗滅 覆轍在前 後車宜戒 伏望 大王改過自新 以永國壽 王聞之感歎 爲之停樂 便引之正室 聞說道妙 以及理世之方 數日乃止”.

볼 때, ‘신충패관’조의 『삼국사』가 『삼국사기』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상에서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와 『삼국사기』의 관련 기록을 비교, 검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필 수 있었다. 첫째는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삼국사』의 내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주제와 문맥, 용어와 표현 등에서 일부 유사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셋째는 원전과 인용문의 관점에서 볼 때, 『삼국사기』를 전거로 해서 『삼국유사』의 『삼국사』 내용을 서술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제이 남해왕’조나 ‘후백제 견훤’조와 같이 『삼국사기』가 『삼국사』를 참고하거나 인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³¹⁾ 결국 출전의 표기 방식에 있어서 『삼국사』와 『삼국사기』는 구분되고 있는데, 원전과 인용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³²⁾

IV. 결론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는 현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체 파악이 어려운 전거이다. 더욱이 ‘삼국사’라는 서명은 『삼국유사』의 또 다른 전거인 『삼국사기』나 『국사』와 혼동될 소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삼국유사』의 찬자가 ‘삼국사’라는 전거명을 어떻게 표기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 『삼국사』의 출전 표기

31) 이러한 점은 『삼국사기』가 『삼국사』를 참고, 인용하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추정케 한다. 즉 찬술시기가 가장 앞선 『삼국사』를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찬자가 각각 전거로 활용하였는데, 이중 제일 후대에 찬술한 『삼국유사』가 원전인 『삼국사』를 보다 상세하게 인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차후의 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2)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가 『삼국사기』와 전혀 무관한 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의 각주(31)에서 지적한 것처럼, 『삼국사기』가 『삼국사』를 원전으로 해서 찬술되었고, 이후에 『삼국유사』의 찬자가 『삼국사』와 『삼국사기』를 참고, 인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와 관련해서 몇 가지 특징을 살필 수 있었다. 첫째, 『삼국유사』에서 『삼국사』를 인용할 때는 ‘삼국사’라는 전거명을 빠짐없이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삼국사’라는 용어와 함께 ‘전’ 형태의 종속어를 병기한 경우도 있었다. 셋째, ‘신충괘관’조에서 언급된 ‘전삼국사’에서 ‘전’은 조목의 전반부에 기술된 내용을 지칭하는 지시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삼국사』의 표기 방식은 『삼국유사』의 또 다른 전거인 『국사』나 『삼국사기』의 출전 표기와 차이를 보인다. 『국사』는 ‘국사’와 ‘기’, 「사신」류의 용어로 전거명을 표기하였고, 『삼국사기』는 「사신」류의 용어로만 출전을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기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는 『국사』나 『삼국사기』와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원문과 인용문의 관점에서 『삼국유사』에 인용된 『삼국사』가 『삼국사기』일 가능성을 살펴보았는데, 용어와 표현, 주제와 문맥, 문장구조와 분량 등에서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많았다. 따라서 『삼국사』가 『삼국사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표기와 인용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삼국유사』의 찬자는 『삼국사』를 『국사』나 『삼국사기』와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5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국이상국집』, 『삼국사기』, 『삼국유사』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2002.
이강래,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1997.
정구복, 『한국중세사학사(Ⅰ)』, 집문당, 1999.
차광호, 『고려시대 역사서의 신이성과 삼국유사』, 역사산책, 2018.
하정룡, 『삼국유사 사료비판』, 민족사, 2005.
김석형, 「구삼국사와 삼국사기」, 『력사과학』 4, 1981.
노명호, 「고려 전·중기에 歷史書는 왜, 어떻게 다시 서술되었나: 『삼국사』의 구성
과 그 후의 변화」, 『역사학보』 248, 2020.
이정훈, 「구삼국사의 편찬시기와 편찬배경」, 『역사와 실학』 31, 역사실학회, 2006.
이종문, 「삼국유사 신증개관조의 ‘前三國史’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 4, 서경
문화사, 1998.
이희관, 「견훤의 후백제 건국과정상의 몇 가지 문제」, 『후백제와 견훤』, 서경문화
사, 2000.
정구복, 「고려 초기의 삼국사 편찬에 대한 일고」, 『국사관논총』 45, 국사편찬위원
회, 1993.
차광호, 「삼국유사에서의 국사 인용 형태와 그 의미」, 『영남학』 30, 경북대 영남문
화연구원, 2016.
홍윤식, 「삼국유사에 있어서 구삼국사의 제문제」, 『한국사상사학』 1, 한국사상사
학회, 1987.
末松保和, 「舊三國史と三國史記」, 『朝鮮學報』 39-40, 1966.

Abstract

A Study on the Samguksa Cited in the Samgukyusa: Focusing on the Citation Styles

Cha, Kwang-ho

Samguksa, which is cited in *Samgukyusa*, is transmitted no longer today, which makes it difficult to figure out its true nature. Furthermore, the title "*Samguksa*" itself can be confused with *Samguksagi*, which was also published during *Goryeo*, and *Guksa*, one of references of *Samgukyusa*.

This study focused on the possibilities that the author of *Samgukyusa* was aware of confusion involved in the title "*Samguksa*" and set a couple of minimum criteria of writing to address the confusion. As a result, he distinguished *Samguksa*, *Guksa*, and *Samguksagi* when citing them in the book. When citing *Samguksa*, in particular, he made it sure that he wrote down the title "*Samguksa*"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source. He also used analogous or subordinate terms like "*Bonjeon*" and "*Jeon*" for *Samguksa*. He used "*Gi*" and "*Saron*" for the subordinate or analogous terms for *Guksa* and cited *Samguksagi* in the form of "*Saron*" in his *Samgukyusa*.

Those findings indicate that *Samguksa* cited in *Samgukyusa* is a different book from *Guksa* and *Samguksagi*.

keywords :

Gusamguksa, Guksa, Samguksa, Samguksagi, Samgukyusa